

대구주보

사순 제2주일

2010. 2. 28. (다해) | 제1664호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필리 3, 20)



정임락 (볼라시오) 대구가톨릭 사진가회

오늘의미사

입당송

주님, 제 마음 기도하며 당신 얼굴 그렸나이다.
주님, 당신 얼굴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창세 15,5 - 12,17 - 18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네.

제2독서 필리 3,17 - 4,1 또는 3,20 - 4,1

복음환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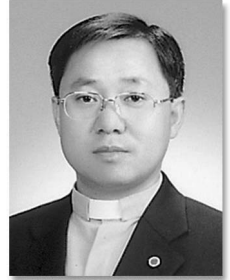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루카 9,28ㄴ - 36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희망이 있는 싸움



박영일 바오로 신부
이곡성당 주임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5-6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 있는 환자도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훨씬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인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낫는다는 희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없는 기쁨이 가득한 것에 대한 희망, 영원한 행복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잘 견뎌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이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이겨낼 힘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시인 도종환씨도 자신의 시 「암병동」에서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뿐일 때도 우리는 온몸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 부정, 부패 등과 맞서 싸우는 것도 희망이 있는 싸움이며, 그리스도인이 겪는 십자가도 희망이 있는 것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장차 받을 행복에 비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희망이 있는 고통이며,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타볼산으로 가셔서 당신의 감추어진 신적인 면모를 보여 주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수난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정신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수난을 받아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신적인 면모를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참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보면 고통 받고 짜증스러울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과 그것을 약속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은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제2독서에서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리 3,21)

■ 교구 100주년 편찬위원회

교무금제도의 확정과 교구내 지역구체제의 도입

김태형 베드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구가 설립된지 20여년이 지난 1930년대에도 교구살림은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교육이 우선 되어져야한다고 드망즈 주교는 생각하였다. 당시의 “교우들은 각자의 본당을 위해서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희생을 해왔지만 교구 전체의 살림에 협조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만 생각하여 왔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도 교육을 받아야한다”라고 드망즈 주교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구의 신자들이든 선교사이든 간에 모두 교구살림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드망즈 주교는 교구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하여 교무금 제도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교무금 제도는 1931년에 열렸던 전조선 주교회의(조선교구 시노드)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고, 1932년 성직자 회의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교무금 제도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1933년 8월 31일 교무금 납부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교무금 제도가 시행될 당시의 신자들의 교무금 평균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1933년 드망즈 주교의 보고서에 흥미롭게 분석되어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 본당 신자들이 1인당 연간 평균 78.2전(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의 돈으로 계산하면 7만8천2백원 정도로 추정됨)으로 제일 많았고, 경상북도의 신자들은 60.2전(6만2백원), 경상남도의 신자들은 36.7전(3만6천7백원), 전라북도는 1인당 30.2전(3만2백원), 전라남도는 19.5전(1만9천5백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구 신자 전체 교무금은 16,941원(현재돈 약 16억9천만원)이고 대구대목구의 신자수 42,509명으로 1인당 평균 교무금은 39.8전(3만9천800원)이 되었다.

각 본당의 전체 교무금 중에 10분의5(절반)는 각본당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한 경비로 쓰이고, 나머지 10분의5(절반)는 교구로 보내졌고, 교구로 보내진 교무금의 10분의2는 선교사를 위한 수당의 일부로 쓰였으며, 10분의 3은 교구 전체사업을 위해 쓰였다고 하였다. 본당에 남겨진 교무금은 주교방문, 회장피정, 제전비(전

례거행에 필요한 경비), 그 밖의 본당사업 등 필요에 따라 쓰여 졌고, 이것을 분배하는 일은 본당회의에서 행해졌으며 선교사가 그 일을 지도 감독하였다. 교구로 보내진 교무금은 1933년 유급 전교회장수가 84명이었기에 이들의 월급을 위하여 드망즈 주교는 8천-9천원(8억-9억)을 사용하였다고 보고서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으로 교구 전체를 위한 다른 사업을 위해서는 교무금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신학교 운영비, 무료진료소 운영비와 같은 사업 등은 개별적인 모금과 원조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했다. 그래서 드망즈 주교는 밤 낮으로 외국의 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띄우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교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였기에 많은 도움을 외국의 교회와 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재정적인 면에서 교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 조선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1933년 교구에 지역구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교구 소속 4개의 도(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는 프랑스 선교사가 사목하고 있는 본당 2개 지역과 라틴어로 회의를 하는 조선인 사제들로 구성된 6개 지역, 합해서 모두 8개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각 지역에는 장상이 한명씩 있고, 그 장상은 지역회의 장소와 날짜를 정해 2명의 사회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제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가 있었던 다음 달에는 회의 장소, 날짜 참석자 이름 사회자 이름 그리고 토의 내용 요약 등을 적은 보고서를 주교에게 보내어야 한다.

이 지역회의는 일년에 4번 대재일 중에 열리며 주교가 보낸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오전에는 수덕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고 오후에는 교리를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린다. 각 회의에서는 의견 교환과 실제 해결책에 대한 토의가 있게 된다. 오전 오후 두 회의 시간 사이에 모든 사제들은 15분 동안 공동 성체조배를 하고 이어서 장엄하게 성체 강복식을 거행하였다.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대구대교구 산하기관 3】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관, 피정 및 수련시설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사목기획 실장

1.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관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교구산하에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학원은 교구내 수도자들의 교육기관으로 원장은 오윤교신부이고 분도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수도원에 입회 후 수도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가톨릭신학원에서 2년 과정의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 626-5001,2)

가톨릭음악원은 1987년 설립된 가톨릭 음악교육기관으로 원장은 김종현신부입니다. 일반과정과 심

화과정, 전공반(오르간, 지휘, 성악, 작곡)으로 나누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

습니다. 또 청소년합창단인 뿌에리칸포레스와 성인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55-4847)

새얼학교는 1977년에 설립되었고 직장인들을 위한 중고등과정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교장은 박상용신부입니다. 오후 7시-10시까지 자원봉사자 대학생과 현직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 472-2376)

새빛학교는 1987년 설립되었고 어르신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글학교와 영어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교장은 박상용신부입니다. 현재 400여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476-3100)

가톨릭교육원은 교구인준단체가 교구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신부는 장영일신부입니다. ☎ 250-3000)

가톨릭근로자회관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고, 관장은 이상해신부입니다. ☎ 253-1313)

가톨릭문화관은 바이올린, 플룻, POP, 유아초등미술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관장은 박상용신부입니다. ☎ 476-6211)

가톨릭여성교육관은 교구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요람으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관장은 이옥분교

수입니다. 월요일은 웃음치료, 창작사진, 영어중급, 오카리나, 화요일은 미술치료, 유화입문, 수지침, 목요일은 수지침, 칭찬기술, 금요일은 영어기초, 미학과 인생, 칭찬기술, 의사소통을 돕는 부모교육, 꽃꽂이, 제대꽃꽂이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영성강좌가 월1회 수요일에 개최됩니다. ☎ 254-6115)

구미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는 이주노동자 상담소,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통번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소장은 이석진신부, 부소장은 김병국신부입니다. 또 성인과정 13개, 유아와 아동과정 15개의 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054-452-2314)

2. 피정 및 수련시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또 다양한 피정 및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에 갈평피정의집 ☎ 054-292-2354), 교구청 내에 꾸르실료교육관 ☎ 253-6984), 영천시 청통면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청통수련원 ☎ 054-336-0816,7), 대구 달

서구 송현동에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656-6655), 성주군 금수면에 무학연수원 ☎ 054-932-0620), 대구 북구 사수동에 베네딕도영성관 ☎ 313-3425), 성주군 벽진면에 벽진사제연수원 ☎ 054-931-1784), 달성군 가창면에 상원피정의집 ☎ 768-8944), 왜관읍에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 054-971-0722), 군위군 소보면에 소보동지 ☎ 054-382-0260), 칠곡군 연화리에 연화리피정의집 ☎ 054-973-4835), 청도군 화양읍에 웅달샘가족피정의집 ☎ 054-371-1362), 고령군 월막리에 월막피정의집 ☎ 054-954-2109), 경산시 자인면에 자인피정의집 ☎ 857-2038), 경주시 산내면에 진목정 피정의집 ☎ 054-751-1571), 칠곡군 동명면에 한티순교성지 피정의집 ☎ 054-975-5151)이 있습니다.





영성의 향기

:: 아래로 내려가는 삶

하느님을 만나는 내적 체험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다양한 삶의 조건이 있고 영적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대로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더욱 더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에서 사랑의 모든 정도에 이르기 위한 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세속화가 심각하고 우리의 아름답던 신앙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가 보다는 각자가 정해 놓은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려면 자신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성경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랑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데리크 뉴먼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생각은 운명을 좌우한다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스텔라는 불행히도 얼굴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입은 크고 이는 빠드렁니였습니다. 그녀는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이 빠드렁니를 감추려고 자꾸 윗입술을 오므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이 그녀의 노래를 듣고 그 재질을 인정했습니다. “아가씨! 나 좀 봐요. 난 당신이 노래하는 것을 주의해 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것이 있어. 그 이가 창피한 모양인데…….” 그녀는 흥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가 어떻단 말이요. 빠드렁니가 무슨 죄가 있나?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청중들은 오히려 당신을 좋아할 거요.” 스텔라는 그 충고를 듣고 자기의 못생긴 이를 생각지 않고 늘 청중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입을 벌려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의 톱스타가 되었고, 많은 희극배우들은 그녀를 모방하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계발할 때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리크 뉴먼

- 율려온 글입니다. -

재의 수요일

교구 사목국

“경상도 사람들은
‘죄의 수요일’로
알고 있다는데요.
재의 수요일이
대체 뭐가요?”

재의 수요일은 교황 그레고리오1세(590-604)에 의해 사순절의 첫날로 재정되었고, 재를 머리에 얹는 전통은 1901년 이후부터 널리 행해졌습니다.

재의 수요일에 교회는 사제가 축성한 재를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모양으로 뿌리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재는 대개 죽음의 상태, 무가치, 슬픔 그리고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겸손한 죄인들은 자기가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해 왔고 그러한 확신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머리에 재를 얹고(예제 27, 30), ‘재 위에 앉아서’(욥 42, 6)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했습니다.(욥2,8: 요나 3,6: 마태11,21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재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열정입니다. 재는 불로 시련과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두 태웁니다. ‘탈대로 다 탄 것’(가곡의 한 소절)이 재입니다. 불로 자신을 태워 재가 되듯이 재를 머리에 받는 의미는, 우리도 하는

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삶(헌신과 봉헌의 삶)을 살아야함을 뜻합니다.

둘째, 정화·순수입니다. 재는 태울 것을 다 태웠음으로 모두 소독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뜻합니다. 또한 재는 탈 수 있는 것은 다 태워서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를 뜻합니다. 재를 머리에 받는 우리도 자신을 깨끗이 정화하고 순수한 본래의 모습,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셋째, 밀거름입니다. 재는 쓸모없다고 흔히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렇지 않죠. 재는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밀거름, 비료가 됩니다. 우리가 재를 받는 의미도 내 자신을 온전히 태우고 정화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향한 밀거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생명을 위한 출발이 됨을 뜻합니다. 온전히 재가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시작됨을 재를 통해 묵상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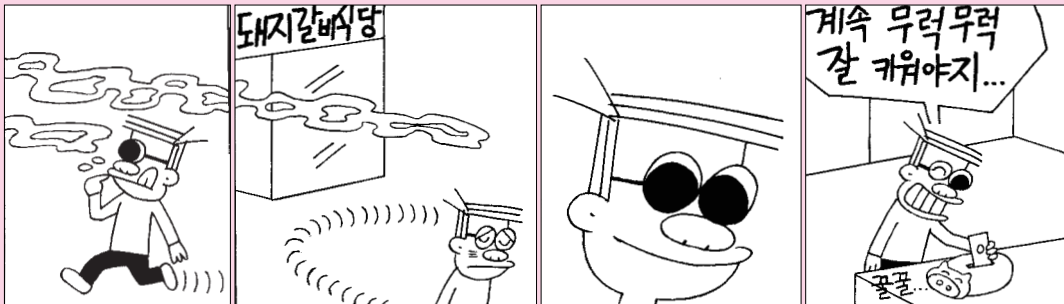
재가 머리에 뿌려질 때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도록 합시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19),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 

나의 극기로

박성규 엘리지오



■ 시노드 마당

“젊은이 복음화” - 청년(2)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시노드 사무국장

교회가 젊은이들에 대한 사목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교회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또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젊은이 사목에 대한 시대적인 표징을 잘 읽음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노력과 관심,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다음의 문제점을 통찰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 본당 청년회 활동 문제

- 몇몇 임원들만 적극적이고 열심이다.
-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약한 상태이다.
- 회원 관리가 잘되지 않고, 회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힘들다.

2) 신앙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 있는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다.

3) 가정 공동체의 위기

- 신앙 안에서의 가족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혼배성사의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

4) 대 사회적 요인들

-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양심과 신앙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한다.
- 그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인 취업과 관련하여 교회의 사목적 관심과 배려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노드에서는 대구대교구 청년사목의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청년 복음화’**라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밑그림을 가지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가정에서 청년 자녀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셋째, 본당에서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넷째, 대리구와 교구에서 청년 혹은 본당 청년(회)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구
교구

시노드 홈페이지 <http://synod.dgca.or.kr>

주보 알림 게재 - 신청 방법 변경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주보 알림 게재를 접수 받던 기존 방법을 변경합니다.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우측 상단 대구주보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서 주보 알림 게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16(화) 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개인은 주보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교회기관·단체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주보 게재료를 미납한 기관·단체는 2010년 주보 게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주보 게재 규정과 접수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대구주보 홈페이지 참조)

▶ 주보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 250-3052)

★ 모임 · 행사 ★

폐제기도회

· 일시: 3.13(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 성소모임 · 피정 ★

전교가멜수녀회 '베드라' 성소모임

· 일시: 2.28/3.28/4.25/5.23(일) 14:00~17:00
· 장소: 대명동 '가멜수도원'
· 문의: 010-2646-7765(www.carmis.org)

성서통독 피정(054-382-0260)

· 일시: 3.19(금)~20(토), 장소: 소보동지

영성 침묵 피정(054-382-0260)

· 1차: 3.20(토)~21(일), 장소: 소보동지
· 2차: 3.30(화)~31(수)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3.7(일) 11:00, 장소: 서울 본부
· 문의: 010-4555-7526(kmsvocation@daum.net)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 일시: 매달 첫째 주일 오후 2시
· 장소: 대구 이곡동 수녀원
· 문의: 587-2898/016-570-0939
· 성소 상담문의 언제나 가능(www.fmmkor.org)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

· 일시: 매월 첫째 일요일 11:00~16:00
· 장소: 서울 돈암동 성골롬반 선교센터 2층
·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젊은 남성
· 문의: 양창우 신부 010-6818-3737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 있는 남성
· 문의: 010-8510-5423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 음악원 합창단 남 · 여 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제22기 모집

· 문의: 255-4847

2010년 1학기신학교육원 신학강좌 수강생모집

· 과정: 신학일반, 성경, 특별(영성지도와 상담, 생명윤리, 성경안의 여성들, 교부학, 원문성경연구, 영어성경(로마서), 중재교육)
· 개강 및 문의: 660-5105~6

관덕정 3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 개강: 3.2(화) 10:00~12:00 화, 목
· 과정: 사도행전(Acts) 및 민수기(Numbers)
· 문의: 254-0151/010-2578-5535, 화바: 2만원

제11기 외식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 개강: 3.2(화) 10:30 (감삼캠퍼스103호)
· 내용: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특별교육
· 교육: 1년 2학기/매주(화)10:00~17:00, 중식제공
·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 문의: 850-3179(www.oesikceo.com)

북현성당 성경대학 개강

· 일시: 3.5(금)부터 매주 금요일
14:00~16:00 낮반/20:00~21:30 밤반
· 장소: 북현성당 382-1004
· 강사: 박영식(교보 신부수강료 1학기 1만원, 교재포함)
· 교과내용: 전 후기예언서의 주된 가르침
계산성당 성경공부(마르코 복음의 수난과 부활)
· 개강: 3.9(화), 신청: 254-2306
· 중 · 장년 듣기반 (목 10:00~12:00)
· 청년 나누기반 (화 20:00~22:00)

취업/창업/봉사자를 위한 장례지도사교육생 모집

· 7.17(토) 자격검정시험대비(연령, 성별, 학력 무)
· 취업반(20대~40대)/창업반/봉사반(40대이상)
·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010-4142-4414

가톨릭 고려수지침봉사자학교 수강생모집

· 수지침자격증반: 1년과정, 8만원(목) 13:30
· 생활수지침반: 4개월, 4만원(화) 19:30
· 문의: 회장 김정자테레사 254-6115

제4기 대구대교구 가톨릭어머니학교 개설

· 일시: 3.11(목) 10:00~16:30, 매주 목(6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마감: 3.7(일)
· 신청비: 10만원, 선착순 42명(입금순서)
· 입금계좌: 대구은행 164-13-144707 한혜숙
· 접수 및 문의: 054-275-0610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일시: 2차 3.26(금) 13:00~28(일)
· 장소: 부산 마리아피정센터
· 강사: 최봉도 F.하비에르 신부
· 피정비: 11만원, 부산045-01-0375520(재)티업스인
· 문의: 051-634-0228/011-9503-0228

'교구 100주년, 선교

복음의 나팔수 - '바로로 선교, 피정 연수

· 일시: 화~토(2-3시간), 장소: 선교센터(계산문화관3층)
· 대상: 본당 20~40명, 지도: 이관석 신부
· 문의: 한국천주교구가두선교단 781-6100
※ 본당 전교우 선교연수 별도 신청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모집

· 일시: 3.2(화)~11(목) 17:00, 문의: 630-3000

월명성모의집(김천) 직원 모집

· 모집분야: 간호사, 요양보호사
· 문의: 인사담당 054-435-5579

★ 안내 ★

군중위원회에서 부활절을 맞아 군위문물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 3.7(일)까지(꼭 지켜주세요)
· 접수: 본당 사무실
·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 교육병, 하사관, 장교 제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764-4741~3(www.성가정입양원.com)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말알 후원회 및 사각작애인 선교회 월미사	3월 1일(월) 오전 11시	계산성당	한국SOS어린이마을	3월 3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군중후원회 미사	3월 1일(월) 오전 11시	성모당	3월 후원회월례미사		2층 강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3월 4일(목) 오후 3시	성모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3월 1일(월) 낮 12시	성모당	미바회 미사	3월 5일(금) 오전 11시	성모당
꾸르실리따 월례미사	3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리교육관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3월 6일(토) 오후 2시	성모당

3대 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 전문

미성당 귀금속

보석강정 무료서비스 실시, 심플 다이아몬드
컬러링 행사 (가나강좌를 받고오세요)
미국보석학회 공인 국제보석감정사 박제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앞산 순환 도로
구정동부
미성당
앞산 내 가리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 · 교구청(성모당)내 교육원 가동3층

오월의 정원
wedding culture
하루의 정원을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라마

결혼 · 돌 · 회갑 · 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시티센터(구. 밀리오레)
예약문의 664-7000
www.maygarden.kr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세안과

iFS아이리식, 백내장, 노인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외과교수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상담전화 626-8881~5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 탈모
2F 여드름, 주름 3F 비만, 미용수술
손 제 경 다미아노
김 인 주 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 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노동부 지정
푸드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 ▶ 지하철 큰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 경 희 스테파니아
Tel : 053/953-9800

강 북
행복을 찾는 치과
Happy Dental Clinic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터럴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323-2875
원 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